



최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산업보건의 분야가 새로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직의 임무가 한층 더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아울러 직장에 있어서의 노동환경과 작업형태도 변화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산업보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산업보건직의 임무는 중차대하다.

산업보건직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산업보건에 관한 법규,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보건교육 등 넓은 분야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산업보건직들이 직무수행을 해나가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본 칼럼을 만든 것이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차례 개정되었고 앞으로도 바뀌게 되는 것이 있겠지만 현실에 입각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매월 연재하여 질(Q)의 응답식(A)으로서 알기 쉽게 집필하여 본 것이다.

### ● 産業保健 管理體制 ●

**Q.11** 현실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고 있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으며, 앞으로도 두기 어려운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사업장의 보건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A.** 우리나라 사업장중 보건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현재 약 13,000개소로 보고 있다. 이 중 식품업, 운수업 등 특수사업장을 제외한 11,000개 사업장에 있어 보건관리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절반에 미달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 규모(300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전담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고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 기관들이 보건관리대행기관이다. 그러나 산업보건은 어디까지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행”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지도”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근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규모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범위를 광업 및 제조업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타 산업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국회에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에서 나온 것이나 아다시피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건강장해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보건관리는 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보건관리대행기관수는 43개로서 이들은 5,800개 대상사업장 근로자 62만명의 보건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장되어 갈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30인 이하 1,500개 영세 사업장을 위하여 국고금 약 7억원을 투입하여 보건관리 지원계획을 실시하게 될 것인바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보건을 위하여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Q.12**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A.**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은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으로서 소정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다.

보건관리기관의 인력, 시설 및 설비 기준은 대상사업장 150개 또는 대상근로자 15,000인을 기준으로 하여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1인 이상, 간호사 2인 이상,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인 이상, 산업위생관리기사 1인 이상의 인력과, 건강상담실 17㎡ 이상, 분석실험실 33㎡ 이상의 시설과 소정의 작업환경측정기기 15종, 건강진단기기 18종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대상사업장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제 사업장을 순시지도 하는데는 인력에 있어 전임의사 1인과 촉탁의사 1인, 전임간호사 6인, 위생기사 2인, 행정요원 1인, 운전기사 1인이 필요하다고 보며, 기동력을 고려할 때 차량도 있

어야 한다. 고로 대행기관이 운영되기에는 최소 근로자 1인당 월 2,000원의 보건관리비(현재 1,000원)가 소요된다.

**Q.13**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장단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A.** 장점은 현재 어느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의 산업 보건관리를 위한 이상적인 조직과 기능이 없으므로 이 제도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팀웍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갖추기 어려운 시설과 기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서 관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제도가 성공하면 모든 영세기업(50인 이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 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잘못하면 방문에 의한 정기적인 사업이므로 단속적이며 형식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 대행기관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사업장의 참여의식이 없을 경우 성공을 거두기 어려우며 팀웍이 잘 되지 않으면 효율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여하간 보건관리대행업무의 성과는 이것을 수행하는 대행기관의 보건관리자(의사, 간호사, 위생기사)들의 능력과 열의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생각된다. ♣

